

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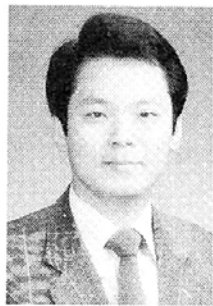
참으로 딱한 세상

김영삼 문민정부가 국민의 실망과 경계를 비롯한 총체적 사회 위기감 속에 저물어 가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는 남여가 평등한 돌본 인본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지배했던 사회였음에 틀림없다.

정치도 경제도 '갈자자걸음'

선진국들은 다가오는 21세기와 새로운 밀레니움 시대를 대비하여 환경, 교육, 교통, 가족, 기업, 삶의 질, 역사, 철학,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인류의 살아온 삶과 역사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되돌아 보고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한복룡 (충남대 법대 교수)

우리 사회가 파괴되고 생명의 존엄성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수많은 사람이 비명에 간 것은 우리 사회가 철저히 부패한 결과이다.

한 토론회가 아직 없었다. 상대방을 흠집내기에 바쁘고, 집권을 위한 국가권력구조에 너무 집착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 자존심 회복하자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는 눈을 가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 계급, 지역, 종교, 신분 등에 의하여 편견을 갖지 말고, 사물을 공정하게 보고 판단하라는 뜻이다.

열린마당

대선후보 '불교계 공약'

- 1 대(對) 불교계 공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김영삼대통령이 92년 대선당시 불교계를 향해 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정부의 문화예산은 전체예산의 총 0.62%에 불과합니다.

질문내용

국을 내세우는 우리로서는 매우 빈약한 예산입니다. 귀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문화예산을 문화선진국답게 늘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희창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귀사의 질문 4건에 대해 개별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공약사항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당은 어떠한 경우라도 편향적 종교정책을 배제하며, 신앙의 자유와 종교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사찰환경 훼손 개발행정 억제 세계적 불교성지 조성 지원

이 더욱 보완될 수 있는 시행령을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문제가 되고 있는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를 점차 폐지 또는 합리적 개선점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대중 <국민회의>

1 대불교계 현안에 대한 3대부문 10대공약을 밝힙니다. 첫째, 특정종교 편향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자·군내의 특정종교 편향 행위시 엄단하며 이를 공직자 윤리로 확대하여 사례 적발시 엄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불교계 현안해결입니다. 사찰환경보존을 위한 법령정비 및 종합대책 수립과 함께 불교방송 지방국을 추가개국 허가하겠습니다.

종교편향 엄벌 공직자 윤리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추진

셋째, 민족문화 전승차원에서 불교문화 보존·육성입니다. 문화재 보존·보수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성보박물관 건립지원 포함)와 팔만대장경 한글화 및 전산화 사업지원, 한국불교를 대표할 불교성지 복원 지원(황룡사, 미륵사, 부여 정림사 등 폐사지 복원 포함), 불교문화유산 전산화 및 대국민 홍보 지원(역사·문화재 국민교육 강화)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인제 <국민신당>

1 농지법 개정: 현재의 농지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찰농지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종교활동과 문화재 보호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문화재 보호: 불교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훼손 또는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를 파악하고 이를 보존하고 복원하는데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찰농지의 특수성 법적보호 문화예산 1%로 확대 편성

3 사찰환경: 국민신당이 집권한다면 사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및 환경관련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4 통일후의 북한문화재 보존대책 강구: 그동안 북한의 불교문화재는 많이 훼손되고 망실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예천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5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